

기혼여성의 재취업 구조에 관한 사례연구  
: 전업주부 재취업훈련 참가자를 중심으로

Married Women's Return to the Workforce  
: Findings from the Participants in a Reemployment Training Program

신라대학교 교양학과

강사 구 명 숙\*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홍 상 옥

Department of Liberal Arts and Science, Silla University

Lecturer : Koo, Myung-Sook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 Hong, Sang-Uk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help develop women's human resources and promote married women's return to workforce. Using various data, we examined the patterns of Korean women's economic activities over the lifecycle, career discontinuation and return to the workforce. We also interviewed twenty full-time housewives who wanted to return to workforce. The interview questions included reasons for seeking employment, desired working conditions, and difficulties in finding a job.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two groups with respect to reasons why they want employment. One was an economic need such as earning basic living expenses and supporting the family. The other was self-realiz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Second, most women wanted to do unskilled labor such as housekeeping work, whereas some young or well-educated women looked for a professional job.

Third, married women preferred part-time jobs, which were compatible with their family care demands. Most of them wanted a workplace located close to home. The women with child-care responsibility preferred working at home.

Fourth, regarding difficulties of returning to workforce, they pointed out vocational ability problems due to their career discontinuation, social prejudice such as gender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pressure in maintaining work and famil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omot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t is required not only to change social prejudices but also to increase effectiveness in policy implementation. In addition, counseling for job-search and vocational ability training programs should be provided.

-----  
▲주요어(Key Words) : 기혼여성(married women), 재취업(returning to the workforce), 전일제(full-time), 전업주부(housewives), 경력단절(career discontinuation), 재취업구조(job market structure)

\* 주 저 자 : 구명숙 (E-mail : aklove61@silla.ac.kr)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30여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현재 48.9%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61.3%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여성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여성인력활용이 낮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과 동시에 남성은 직장이라는 공적영역,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을 대표하여 이를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전통적인 사회규범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여 왔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 전에 직장을 다녔더라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예가 많았고, 결혼 후 직장생활을 병행하길 희망하는 여성이라도 가정 내에서 육아나 가사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장생활을 계속하는데 대해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선택을 강요받아 왔다(황수경, 2002).

그러나 최근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정과 직장을 남녀 공존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려는 새로운 사회규범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수준에서 남녀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기혼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노동수요측면에서도 인력부족현상과 여성집중 직종인 서비스업의 확대로 인해서 기혼여성에 대한 노동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 특히 기혼여성 인력의 활용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김태홍, 1996).

우리사회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황수경, 2003).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규범의 변화와 고학력화의 영향 등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욕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실제 사회적 기반은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정도로까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출산 및 양육, 자녀 교육, 노인수발 등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가사부담은 여전히 전적으로 주부의 몫으로 남아 있어 기혼여성의 취업동기를 억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기혼여성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취업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을 노동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은 구조적 실업의 해소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당위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기혼 여성의 활용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적

으로 기혼여성이 전체 여성인구에서 4분의 3 이상을 점하고 있는 반면 대학진학률의 상승으로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기혼여성인력의 풀(pool)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현실적으로 향후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취업하고 있던 기혼여성이 출산 및 자녀양육과 같이 일시적인 가사부담 증가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비록 그것이 일시적일지라도 여성의 경제활동에는 영구적인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자녀양육의 부담이 줄어들어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길 희망하더라도 이전의 일자리와 유사한 일자리로 취업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인적자본 활용도가 낮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정기간 동안 노동시장으로부터 벗어나 있게 될 것이 예상되는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부터 향후 발생할 경력단절을 고려하여 경력에 대한 수익률이 낮은 직종을 선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열위의 직종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의 지속성 여부는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의 질을 규정지면서 여성 전체의 노동시장 내 안정적 통합과 상대적 지위 제고에도 관건적인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우리사회 전반에서의 여성의 상대적 지위와도 직결되어 있다. 우리사회 전반의 가부장적 질서는 남성이 공적영역을 전담하고 여성이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의 울타리 내에 머물면서 가정에서의 역할에 함몰되어 있었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어떤 이유에서 파생되었건 이러한 성역할 분담구조는 사회적 성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이를 재생산하는 폐단을 가져온다. 결국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지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혼여성인력이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및 향후 여성인력활용과 기혼여성의 재취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 여성의 생애단계별 경제활동상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동시에 여성의 재취업현황과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특히 재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의 일과 가정을 둘러싼 고민과 욕구와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심층면접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해서 기혼여성의 재취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및 내용

### 1)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첫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여성개발원의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1986년에 수행된 1차 조사와 1992년 2차 조사, 1997년의 3차 조사에 이은 것으로 취업,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등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특성, 그리고 취업력 변화과정 등 여성의 취업실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어, 기혼여성의 재취업, 여성의 생애주기와 취업의 동태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둘째, 전업주부의 특성 및 경력단절의 문제, 취업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 문헌을 고찰하였다.

## (2) 면접조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잡성을 안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일과 가정을 둘러싼 이들의 고민과 욕구와 동기가 무엇인지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면접에 의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시되었다. 면접대상은 여성직업훈련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시한 전업주부 재취업훈련 참가자들로 구성되었다. 면접대상자의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이다(<표 4>). 연령대별로 면접대상을 선정한 것은 여성의 취업에 있어서 비록 이들이 기혼여성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특히 연령대별로 희망하는 취업조건 및 직종 등이 다를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조사는 구조화된 조사지로 직접 연구자에 의해 2004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면접시간은 사례 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면접대상자와 미리 약속을 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루어졌다. 면접내용으로는 결혼 전 취업경력, 취업중단 이유, 취업중단 시기,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재취업희망 시 근무조건 및 직종 등 취업관련 사항과 가족관계, 나이, 학력, 건강상태 등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였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생애단계별 경제활동상태, 결혼에 따른 취업구조의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전업주부가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희망하는 근무조건 및 직종, 취업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셋째, 기혼여성의 재취업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지원과제는 무엇인가?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한 용어인 '재취업'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퇴출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노

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육아휴직과 같이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노동시장을 퇴출하였다가 다시 직장으로 복직하는 현상은 재취업의 범주에서 제외되며,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주,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재취업구조'는 여성들의 재취업을 결정하는 요인, 재취업시기, 기간, 특성들뿐만 아니라 재취업여성의 고용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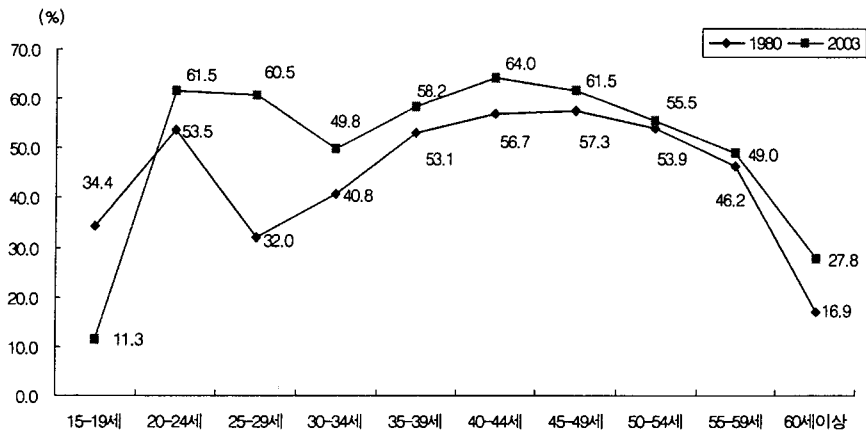
## II.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구조

### 1. 경제활동참가 현황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1980년 42.8%, 1995년 48.4%, 2003년 48.9%에 달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7%로서, 기혼의 48.0%에 비해 약간 높다. 또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03)을 보면 20-24세와 25-29세에 61.5%, 60.5%를 보이다가 30-34세에 49.8%로 급격히 하락한 뒤에, 35세 이후부터 다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여 40-44세에 64.0%로 최고조를 이루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형태를 보여주는 M자형은 선진국에서는 1960~70년대까지 관찰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점차 사라졌다.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M자형 구조가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는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 구조가 남성과 유사한 역U형을 띠기 시작하였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구조에 여전히 M자형 구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03).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관련하여 다소 변화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전형적인 M자형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에서 오목한 부분이 1980년대와 비교해서 다소 완화된 것으로, 최저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바뀌었다. 고학력화로 25세 미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한 반면, 2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여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역U자형의 구조에 보다 근접하였다.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여 년간 20% 포인트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30세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각 연령대별로 5~15%포인트의 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이 26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난 20여 년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기혼여성이 주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들을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결혼 직후에 해당하는 20대 후반에서의 경제활동참가는 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그림 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가하였지만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이 집중되는 30대 초반에서의 경제활동참가는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곤란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일(market work)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일(non-market work)을 선택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 가사부담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와 취업을 희망하게 된다. M자형 구조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 결혼제도와 이와 관련된 성역할 분담 구조가 만들어 낸 여성노동시장의 왜곡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2. 생애단계별 경제활동상태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단계별 경제활동패턴은 여전히 결혼이나 출산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퇴출하였다가 육아기 이후에 재취업하는 전형적인 M자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혼, 출산, 양

육에 따른 고용중단-육아기 이후 재취업'하는 취업패턴인 M자형 연령별 참가율구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욱 전형적인 형태를 띠며(김태홍, 1996), 최저점인 30-3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오스트리아 80.3%, 덴마크 86.2%, 스웨덴 83.7%, 캐나다 80.0% 포르투갈 84.1% 등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ILO, 「노동통계연감」, 2003).

한국여성개발원의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2002)를 이용한 <표 1>에서 여성의 주요한 생애단계 즉, 결혼, 첫 자녀출산, 막내자녀의 출산 및 취학에 따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직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3.7%이었으나 결혼직후에는 22.6%로 결혼과 더불어 취업여성의 절반 정도가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출산 직전의 취업률은 29.5%로 결혼직후보다 약간 상승하는데, 이는 자영업에 하는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등 결혼과 더불어 노

<표 1> 생애단계별 여성의 취업상태 변화

단위 : %

		최종학교 졸업직후	결혼 직전	결혼 직후	첫출산 직전	첫출산 직후	막내 출산전	막내 출산후	막내 입학전	막내 입학후
취업률		34.8	43.7	22.6	29.5	20.6	21.4	23.4	36.1	39.5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1.9	4.9	12.5	7.5	13.7	14.0	14.3	17.9	17.0
	무급가족	8.6	9.1	39.1	26.8	45.5	51.1	56.1	47.8	46.0
	상용고	84.1	79.3	41.4	58.6	34.0	27.9	22.3	22.3	23.4
	임시일고	5.4	6.6	7.0	7.1	6.8	6.9	7.3	12.0	13.7
학력별	중졸이하	14.3	26.0	24.9	26.3	24.5	26.4	30.3	42.0	45.4
	고졸	44.8	53.9	15.5	26.3	13.0	12.4	12.9	27.2	29.3
	대졸이상	51.8	61.3	33.0	45.4	28.2	28.4	27.7	33.8	37.3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2002),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자료에서 재구성.

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여성이 약간 증가한데 기인한다. 첫 자녀출산직후의 취업률은 20.6%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나타낸다. 그 후 취업률은 증가세로 반전하여 막내자녀출산직후(23.4%)부터 취학 전(36.1%)까지의 기간에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막내자녀 취학 후(39.5%)에도 약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생애단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는 취업여성의 대부분이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퇴출하고, 막내자녀를 출산한 직후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시작하여 재취업여성의 대부분이 막내자녀 취학이전에 재취업을 마무리함을 의미한다.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결혼직후(48.4%) 감소하였다가 첫 자녀 출산직전(65.7%)에 약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첫 자녀 출산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막내자녀 출산 후에는 29.6%로 떨어지지만, 그 이후 약간 증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고의 비율도 결혼과 더불어 급감하였다가, 첫 자녀 출산직전에 약간 증가하나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반면 임시고의 비율은 결혼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임금근로자는 결혼과 함께 계속 취업하기가 어렵고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극히 곤란하며 한번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면 임금근로자로서 재취업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임시고로서의 재취업기회는 어느 정도 열려져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 취업자를 학력별로 구분해서 생애단계별 취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고졸과 대졸 이상 여성의 생애단계별 취업률 변화는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즉, 결혼과 더불어 취업률이 급감하였다가 첫 자녀 출산직전에 약간 증가한 이후에 출산과 함께 더욱 하락한다. 첫 자녀 출산이후에 하락된 취업률 수준은 막내자녀

출산직후까지 지속되다가, 막내자녀 입학 전부터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다만 대졸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첫 자녀출산에 따른 퇴직률이 고졸보다 낮았다. 그리고 대졸의 막내자녀 출산 이후 재취업률은 고졸보다 낮았다. 중졸이하 여성은 고졸이나 대졸과는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였다. 즉, 중졸여성은 결혼직전의 취업률 수준이 막내자녀 출산직전까지 유지되었다가, 막내자녀 출산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 3. 결혼과 취업구조의 변화

#### 1) 결혼과 경제활동상태 변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사건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서 취업여성의 절반 정도가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혼이 우리나라 여성고용구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침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결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을 전후로 하여 결혼 1년 전과 결혼 1년 후에 모두 취업상태에 있었던 '계속취업자'의 비율은 14.2%이었다. 그리고 결혼직전에는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결혼 후에 취업한 '결혼 후 신규취업자'의 비율이 8.4%,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둔 '결혼 후 퇴직자'의 비율이 29.2%, 그리고 결혼과 관계없이 계속 미취업상태에 있었던 여성비율이 48.2%이었다. 즉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는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 두는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한 결혼과 함께 새롭게 일을 하게 되는 여성비율도 8.4%나 되었다.

<표 2> 결혼 전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

	계속 취업자	결혼후 신규취업	재취업자	결혼후 퇴직	계속 무업자	전체
결혼1년후	14.2	8.4	0.0	29.2	48.2	100.0
2년후	11.9	9.7	2.9	28.1	47.4	100.0
3년후	10.9	10.6	4.6	26.5	47.4	100.0
4년후	10.2	11.9	5.8	25.4	46.7	100.0
5년후	9.6	12.9	6.7	24.3	46.4	100.0
6년후	9.3	14.2	7.8	22.9	45.9	100.0
7년후	9.0	15.7	8.1	21.8	45.5	100.0
8년후	8.4	17.0	8.9	20.4	45.3	100.0
9년후	8.3	18.8	9.5	18.8	44.6	100.0
10년후	8.2	20.8	9.9	17.4	43.7	100.0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2002),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결혼 이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여성집단의 구성비는 변화를 보였는데, 계속취업자의 비율은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결혼 후 5년차에는 9.6%로 감소하고 그리고 10년차에는 8.2%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결혼 2년차부터 재취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재취업자 비율은 해당여성의 2.9%정도이었다. 이러한 재취업 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결혼 5년차에는 6.7%, 결혼 10년차에는 약 10%에 해당하였다. 결혼 전에 미취업상태에서 결혼 이후에 취업상태로 전환한 여성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결혼 직후에는 8.4% 정도가 새롭게 취업자로 전환되었으나, 5년차에는 12.9%, 10년차에는 20.8%나 되었다.

이에 비해 결혼 이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 이후 퇴직자 비율과 계속해서 미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결혼 직후에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 비율이 29.2%에 달했다가, 점차 그 규모가 감소하여 결혼 10년차에는 17.4%가 되었다. 그리고 결혼 전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계속 미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비율도 계속 감소하였으나, 감소 폭이 상당히 적어서 결혼 1년차에 48.2%, 5년차에 46.6%, 10년차에 43.7%이었다.

## 2) 재취업자의 특성

결혼 전에 취업상태에 있다가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다시 재취업을 하는 여성의 재취업시기별 분포를 보면, 결혼 이후 10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여성 중에서 36.8%는 결혼 직후 2년차에 재취업하였다. 그리고 3년차에 20.4%, 4년차에 13.0%가 재취업하여, 2~4년차 동안에 70.3%가 재취업하였다. 즉, 재

취업하는 여성은 결혼과 함께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 두었다가, 1~3년 이내에 대부분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 이후에 장기간 미취업상태에 놓인 여성은 재취업할 확률이 상당히 낮음을 의미한다.

재취업을 하는 여성들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보면 결혼 2년차에 재취업하는 여성의 상당수는 상용고이었고, 나머지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 및 일용고로 재취업을 하는 여성도 일부 있었다. 그리고 결혼 이후의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용고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 및 일용고의 비율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 재취업자의 취업직종을 보면, 결혼 3년차에서 재취업한 여성의 31.7%는 전문직 및 준전문직에 취업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판매직,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에 각각 14~17%, 단순노무직에 9.8%가 재취업되었다. 결혼 이후의 기간별 재취업자의 취업직종을 보면 기간이 경과할수록, 전문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으로 재취업되는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으로 재취업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 이후 비취업상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문직과 준전문직, 사무직에 재취업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반면,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으로 재취업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결혼 전후 여성 재취업자의 분포

단위 : %

		결혼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6년후	7년후	8년후	9년후	10년후
재취업시기		-	36.8	20.4	13.0	9.7	10.0	0.4	6.7	2.6	0.4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	17.6	22.0	20.7	24.3	26.0	25.6	18.9	20.0	22.9
	무급가족	-	17.6	14.6	25.9	21.6	19.2	20.5	24.4	25.7	26.1
	상용고	-	52.9	53.7	39.7	41.9	40.4	35.9	37.8	36.4	34.6
	임시일고	-	11.8	9.8	13.8	12.2	14.4	17.9	18.9	17.9	16.3
직종별	전문/준전문직	-	35.3	31.7	19.0	18.9	21.4	16.4	11.8	10.0	11.1
	사무직	-	17.6	14.6	19.0	20.3	18.4	17.2	16.5	15.7	15.7
	서비스직	-	0.0	14.6	19.0	20.3	23.3	23.3	24.4	23.6	21.6
	판매직	-	41.2	17.1	22.4	20.3	18.4	22.4	23.6	24.3	24.8
	생산직	-	0.0	12.2	6.9	8.1	8.7	10.3	13.4	15.7	15.0
	단순노무직	-	5.9	9.8	13.8	12.2	9.7	10.3	10.2	10.7	11.8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2002),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자료에서 재구성.

### III. 전업주부의 재취업활동 사례분석

#### 1. 면접대상자의 특성

전업주부에 대한 면접 사례 수는 총 20사례로 현재 전업주부로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로 구성되었다. 면접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가량으로 결혼 전 취업경력,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 및 이유, 취업희망 시 근무조건, 희망 직종 등 취업관련 사항과 가족관계, 나이, 학력, 건강상태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해 물어 보았다. 면접한 전업주부의 연령을 보면 20대가 2명, 30대 8명, 40대 5명, 50대 5명이었다. 학력은 중졸 1명, 고졸 8명, 초대졸 3명, 대재 및 대퇴 3명, 대졸 5명으로 구성되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면접대상자의 결혼 전 취업경력을 살펴보면, 사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교사직, 은행원, 간호사, 영양사, 공무원 등 다양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절대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가 4건, 자녀교육비 등 생계비 보조가 4건, 여가활용 및 노후대책 4건,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 8건으로 나타났다.

각 면접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4>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4> 면접대상자의 특성

면접대상	연령	학력	가족관계	남편직업	결혼 전 경력	취업중단 이유	취업중단 기간
A	36	초대졸	남편/자녀2	자영업	보육교사	결혼	4년
B	39	고졸	남편/자녀2	회사원	사무직	결혼	11년
C	45	고졸	남편/자녀2	공무원	사무직	결혼	18년
D	29	대퇴	남편/자녀1	회사원	학원강사	결혼	3년
E	38	대졸	남편/자녀2	회사원	학습지도사	결혼	10년
F	53	중졸	남편/자녀2	회사원	생산직	회사부도	6년
G	57	고졸	남편/자녀1	자영업	보건소	희망퇴직	7년
H	40	고졸	남편/자녀2	자영업	화장품회사	결혼	12년
I	53	고졸	남편/자녀2	공무원	검찰사무직	결혼	27년
J	44	대졸	남편/자녀2	교사	유치원교사	결혼	18년
K	47	고졸	남편/자녀3	실업상태	은행원	구조조정	4년
L	39	고졸	남편/자녀2	금융업	농협근무	구조조정	5년
M	34	대졸	남편/자녀2	회사원	보육교사	결혼	7년
N	51	대졸	남편/자녀2	자영업	간호사	육아	17년
O	38	대재	시부/남편/자녀2	회사원	사무직	육아	5년
P	27	고졸	남편	회사원	사무직	결혼	2년
Q	45	대퇴	남편/자녀2	공무원	공무원	육아	10년
R	35	초대졸	남편/자녀2	실직상태	사무직	결혼	6년
S	38	초대졸	남편/자녀2	회사원	영양사	육아	3년
T	53	대졸	남편/자녀2	실업상태	간호사	결혼	27년

## 2.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우리나라 전업주부는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참여보다는 가사노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정현희와 구혜령(2001)의 도시전업주부의 사회활동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 전업주부 중 현재 주부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52.6%이고,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20.8%이며,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주부의 비율은 77.6%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조사에서 주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부들은 가정을 유지하면서 직업을 갖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90%가 가정 외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전업주부를 이상적으로 보는 비율은 8.3%에 불과하였다. 또 '여성도 결혼 후에 직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57.9%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절반 이상이 전업주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을 위한 모임, 1999).

최근 경제적 침체와 불황 등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한 직장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지고 있다. 고용형태도 파견, 계약, 파트타임 등 임시직이 늘어나고 능력·성·과급이 확대되면서 고용 역시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의 가장 혼자 수입으로 가족생계가 유지되던 1가구 1수입(single income) 신화가 깨어지면서 기혼여성의 취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혼취업여성들은 '가계보탬(45.2%)' 이 되거나 '자기집 일(28.5%)', '생계유지(11.8%)' 와 같은 '경제적 이유(86.0%)로 일을 하고 있으며, 자아실현이나 적성활용은 15%에 불과했다. 본 연구에서 면접조사한 결과 전업주부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남편의 실직 또는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절대적인 생계비가 필요하거나, 자녀교육비 등 경제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 등으로 나타났다

### 1) 절대적인 생계비 필요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남편의 고용안정성과 소득수준의 차이는 사회계층간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그 결과 1가구 1수입으로 가계를 꾸려온 전업주부들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남편의 실직,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책임의 부과로 노동시장으로 나오고 있다. 즉 전업주부의 경우 생계비를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실직이나 사업부진(실패) 등 절대적인 생계비가 필요할 경우 여성의 근로소득은 일차적 생계수단인 것이다.

남편의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내가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집의 생계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꼭 취업을 해야 됩니다(G씨, 57세)

나는 지금까지 집에서만 있다가, 최근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시동생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것도 터졌어요 현재는 생활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저 눈물만 나오네요(K씨, 47세)

남편회사가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을 했나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실업급여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많아요 남편보다는 내가 취직을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R씨, 35세)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요 살던 집까지 다 넘어갔죠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용돈은 벌어서 쓰고 있지만 지금 당장 생계가 막막하네요(T씨, 53세)

### 2)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남편의 고용도 안정되고 소득의 수준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현재의 문화 속에서 가족의 욕구가 점차 높아져 갈 때 여성들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다. 특히 자녀의 교육에 거는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녀에게 쏟아야 할 교육투자 또한 엄청나다.

요즘은 자녀를 한 두 명 정도만 낳으니까 주위에 있는 엄마들을 보면 자녀들 교육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되요 이대로 가다간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시키는 것은 아닌가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 시택에 맡기고 내가 돈을 벌어서 보려고 해요(A씨, 36세)

남편의 수입도 괜찮은 편이고 자녀들도 이제 내 손을 떠난 것 같고 해서... 이제 제대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원래 성격이 활발하고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시 취직을 해 보려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싶지가 않았어요 제약이 많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것도 그렇고.. 나는 아직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해서 아이들 교육비는 내 손으로 한 번 벌어보고 싶어요(C씨, 45세)



그동안 집에서 아이들만 열심히 키웠죠 별로 해본 일은 없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돈이 참 많이 들어요 학원도 보내야죠 또 이것저것 살 것도 많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비에 좀 보태려고...(J씨, 44세)

자녀의 취학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 여성들은 가족부양에 따른 경비마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취업을 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그동안 취업을 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았는데 자녀들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지하철 게시판 안내를 보고 무료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B씨, 39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냥 집에 있자니 나 스스로 너무 멍청한 것 같고..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아이가 하나지만, 혹시 둘째 아이가 생기면 돈도 더 많이 들 것 같고...(D씨, 29세)

남편의 사업이 크게 경기를 타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은 잘되고 있어요 나도 가끔씩 남편 사무실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워서 나에게 맞는 일을 찾고 있어요 나는 기회가 되면 창업도 하고 싶고, 내 솜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노후대책도 세우고 싶어요(H씨, 40세)

전업주부들이 일을 가지려는 목적 가운데 생계비의 필요 정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소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다수의 기혼여성들에게 일은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며, 특히 그동안 주 수입원이었던 남편의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인해 수입이 끊긴 여성들은 더욱더 생계수단으로서 일이 중요하다.

### 3)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

오늘날 여성들은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핵가족화, 저출산 등으로 가사 및 육아부담 시간이 줄어들어 여유시간이 많아졌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여성운동 등으로 자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를 현실적으로 자각하고 일상적인 생계문제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직업도 더욱 다양해졌고 각종 전문 분야에 여성참여가 증가하였다.

결혼생활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한 중년기의 여성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좀 더 보람된 일을 찾고자 한다.

나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내 직업을 갖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노인병원, 노인건강센터에서 자원봉사로 주 1회 정도 노인들을 돌보고 있어요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즐거워요.. 나이로 치면 젊은 사람들보다야 불리하겠지만, 교육을 받고 취업의 기회가 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싶어요(I씨, 53세)

나는 결혼하기 전부터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는데,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그만두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 아이들도 다 자랐고 집안의 형편도 그냥 괜찮은 편이고 해서 다시 내 일을 갖고 싶어요 일을 갖고 싶다고 생각한 건 가끔 집안 일을 하고 나면 시간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시간도 활용하고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N씨, 51세)

고학력이고 전문적인 일을 원하는 여성들은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시켜 취업여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란다.

우리 집은 남편의 수입도 괜찮고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들으면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기본적인 품위유지비(?)만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하고 능력을 키워서 내 적성에도 맞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재취업의 가능성도 더욱 높이고 싶어요(E씨, 38세)

결혼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막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만 있으려니 내가 자꾸 뒤쳐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내 일을 갖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알아보았는데 기혼자라는 이유만으로 퇴짜를 맞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TV를 봤는데 여성유망직종이라고 하면서 웨딩플래너를 소개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저게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과연 괜찮은 직업일까? 의심도 들었는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

봤죠 그런데 끌리더라고요 최대한 나의 장점을 살려서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M씨, 34세)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 기획실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결혼한 뒤에도 시어머니 이 계셔서 직장을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둘째아이 낳고 얼마 안 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시아버님까지 봉양을 하게 되어 직장을 그만 두었어요 막내가 아직 어리지만 시아버지 식사 때문에 다른 일은 잘 못했어요 그런 시간이 계속되니까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갔죠 지금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데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들도 지속적으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 참 고민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곳저곳을 뒤져보기도 했는데... 나는 안정적인 내 일을 갖고 싶어요(O씨, 38세)

기혼여성의 취업활동은 자아실현 등의 개인적인 동기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인 여건 및 가족관계 등이 고려되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경제적 능력 상실로 인해 더 이상 빈곤수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저소득 기혼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남편의 고용이 안정되고 비교적 안정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중산층 가족의 경우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득의 하한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 역시 경제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대학교육을 받은 전문직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동기이외에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의 욕구가 취업동기의 큰 부분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 3. 재취업 희망직종 및 조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은 일시적일지라도 여성 자신의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에서 주부가 희망하는 취업직종으로 41.6%가 서비스·판매직, 21.3%가 단순노무직, 19.8%가 사무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시간제를 희망하였는데,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60세 이상(80.6%)이었고, 35-39세(70.9%), 40대(68.0%), 30-34세(60.0%)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25-29세, 30-34세의 각각 50.0%, 61.4%가 육아문제로 30-34세, 35-39세 연령층의 각각 28.1%, 44.3%는 자녀교육문제로 인해서 시간제를 희망하였다. 또한 50대와 60세 이상의 각각 55.1%, 60.0%는 건강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시간제를 희망하였다.

#### 1) 희망직종

##### (1) 가정일과 관련 있는 단순직종

결혼, 출산 및 양육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시간이 지나 자녀양육이 줄어들어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이전의 일자리와 유사한 일자리로 취업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인적자본 활용도가 낮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경력단절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아서 취업기회가 제한된 중년 기혼여성의 일자리로 늘 거론되는 직종은 베이비시터나 간병,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등이다. 이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 없이 가정에서 해운 일하기에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취업을 다시 하려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 집에서 조카를 돌보고 있어요 원래 아이도 좋아하고 해서 가정 탁아 일을 했으면 해요(C씨, 45세)

나는 이전에 섬유회사에 다녔는데.. 지금은 나이도 많고 해서 내 경험을 살려서 산모나 선생아 돌보는 일이나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F씨, 53세)

기혼여성의 취업은 배우자의 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남편의 실직이나 사업실패로 인한 생계형 취업일 경우에는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무슨 일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지금 당장 생계가 걱정이 되니까, 주위에서는 예전에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일을 하라고 난리데, 산모 도우미 같은 일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니까...(G씨, 57세)

내가 당장 생계를 책임지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저곳을 알아보고는 있으나 쉽지가 않다. 내가 지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다(K씨, 47세)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당장 취업을 해야 하니까.. 예전에 하던 일로는 연결이 힘드니까 그래서 가사 도우미나 간병일을 하고 싶어요(T씨, 53세)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전업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일용직이나 단순직, 서비스직과 같은 여성집중 직종에 한정되어 있다. 경력단절은 여성으로 하여금 우량직종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경력직보다는 비경력직으로 과도하게 몰리도록 하여 성별 직종분리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저숙련·저임금으로 특정 지워지는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고스란히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2) 적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

한편으로 기혼여성의 재취업이 저숙련-저임금의 여성집중 직종에 한정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직 및 준전문직과 같은 경력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면접사례 중 일부 주부들은 단순육체노동이외에 적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결혼 전에 전문직에 종사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전의 일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경력단절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과거 자신의 경험과 적성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결혼 전의 일자리로 다시 간다는 건 어렵다는 것을 잘 아니까 그냥 지금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아이 돌보는 일이에요(A씨, 36세)

예전에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D씨, 29세)

나는 결혼 전에 문서정리 같은 것을 잘 했는데요 컴퓨터 다루는 데는 자신이 있으니까 사무직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P씨, 27세)

가능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영양사, 간호조무사)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급식교사나 아니면 간병일 같은 것을 하고 싶어요(S씨, 38세)

여성들은 결혼 전의 일과는 상관없이 직업교육을 받아서 전문직에 도전해보고 싶어 하기도 한다.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인 경우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과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직업훈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나는 결혼 전에 사무직에 있었어요 지금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고서라도 그나마 취업이 잘 된다는 콜센터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싶어요(B씨, 39세)

나는 예전에 화장품회사를 다녔는데... 피부관리 쪽에는 관심도 많고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피부관리사에 도전해보고 싶어요(H씨, 40세)

지금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이 일(노인을 돌보는 일)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좀 힘들겠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케어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꼭 해보고 싶네요(I씨, 53세)

이웃사람 소개로 예전에 전공을 살려서 가정보육을 했었는데.. 너무 오래 쉬었고 또 준비가 안된 상태라 다시 전문교육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예요(J씨, 44세)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들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다. 또한 그러한 기관들이 수요자의 요구와 자원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수용에 맞는 훈련의 창출 그리고 양자간의 연계성도 부족하다. 재취업교육의 많은 부분이 기혼여성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임시적이고 단순기술을 요하는 노동의 훈련만 수용한다.

2) 희망 근무조건

(1)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쉬운 시간제 일

최근 우리사회에도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여성 노동공급의 증가 등 변화된 경제 환경은 시간제 근로의 영역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이점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육아 및 가사부담 등으로 인해 시간의 주관적 가치가 남성에 비해 높고 그로 인해 시간제 근로에 대해 강한 친화력을 갖는다. 특히 6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에게 상대적인 친화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막상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두려움도 크고..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하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보고 싶어요(A씨, 36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으면 해요(D씨, 29세)

이는 기혼여성이 취업이나 사회참여에 가족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생계비가 절박한 경우에는 가사나 자녀에 무관하게 취업을 하겠지만 여전히 여성에게는 가사와 육아, 가족보살핌은 취업에 주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겠다. 또한 중년의 기혼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취업기회' 자체에서 외면당함으로써 풀타임 일을 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상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파트타임 일을 원하기도 한다.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나이 대에 사람들이 종일 일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시간제로 산모 돌보는 일이나 아이 보는 일은 잘 할 수가 있거든요...(F씨, 53세)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내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게, 시간도 활용하고 싶고 해서... 방문간호나 개인간병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N씨, 51세)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가정적으로 안정되고 자녀의 양육부담에서 벗어난 여성들은 전일제로 직장에 열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E씨와 M씨의 경우는 가끔씩 사회봉사도 하면서 시간 운용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을 원한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시간제 선호는 가사노동 수행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하에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형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된다면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 (2) 가정과 가까운 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은 출퇴근거리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집이나 집 근처에서, 출근소요시간이 30분 미만인 직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44.5%, 34.8%로 상당히 높았다. 출근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직장에서 일하겠다는 취업희망 기혼여성은 1.0%에 불과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하니...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일자리를 구했으면...(A씨, 36세)

집과 먼 곳은 좀 그렇고...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이면 더 좋겠어요(B씨, 39세)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더 좋겠어요 이전에 우리집에서 아이들을 돌봤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어린이집을 해볼까 해요(J씨, 44세)

특히 육아나 가사일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 운용에서 재량이 많고 작업장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직장을 더 선호한다. 또한 그동안 가정에만 있다가 용기를 내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오가는 부담을 가지고 싶지 않기도 하고 가사일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리인 집과 가까운 지역을 원한다.

#### 4. 기혼여성의 취업 장애요인

여성의 노동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과 여성 자신의 경제활동 참가의지는 1990년대 이후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 이분법적 성역할 인식과 구조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임금차별이나 성별 직종분리에 따른 불균형한 여성인력 공급문제 등의 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이 경제활동참가율의 획기적인 증대나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황수경, 2003). 우먼코리아 보고서(매킨지, 2001)는 한국에서 여성인력활용의 10대 장애요인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여성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인식부족부터 기업을 독려하여 해결해야 할 인사제도, 모성보호제도, 탄력근무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양성평등교육, 경쟁력을 갖춘 여성인력의 양성, 보육서비스 지원, 여성노동관계법의 실효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Nieva & Gutek(1981)은 여성의 경력개발 장애요인으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성편향적인 교육 및 역할기대, 노동시장 환경에서의 낮은 취업기회, 조직 환경에서 고용이나 임금, 직무기회와 교육 등에서의 차별, 그리고 결혼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이중역할 과중을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기반 등 사회경제 구조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여성 개인이 심리적으로 겪게 되는 좌절감, 낮은 자아효능감, 성편향적인 진로인식, 가정과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 모두를 양립시켜야 하는 부담감 등이 내적 장애요인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3 재인용).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기혼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으로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가정과 직장의 양립 의무, 그리고 경력단절로 야기되는 문제점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1) 성역할에 대한 편견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은 여성인력이 극복해야 할 근본적인 장애요인이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별분업의 논리, 즉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고 위치지어 놓음으로써 기혼여성의 취업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닌 생계 보조적 수입으로 전락되어 채용에서부터 배치, 승진, 임금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받는다. 먼저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기회 자체에서 외면을 당하고, '여성은 특정 직무에 보다 적합하다'는 편견은 사회활동에 있어서 특정 직무와 직책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본 연구에서 면접대상자들은 취업기회 자체에서 외면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내면화하여 직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씨의 경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어봤지만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어, 지금은 기혼 여성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또한 그동안 자녀들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B씨도 자신의 일을 갖고 싶어서 몇 군데 알아보았지만 역시 기혼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절을 당했다. 그래서 그녀도 그나마 기혼여성들이 취업하는데 유리한 조건인 텔레마케터 일을 하고 싶어 했다. C씨 역시 다시 취업을 하려니 결혼을 했다

는 이유로 제한이 많다는 걸 알고 여성이 하기 쉬운 가정보육을 하려고 한다.

2) 가정과 직장의 양립 의무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가사노동과 어린자녀의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사 및 자녀보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사람의 존재 여부나 대체시설 및 사람이 제공하는 질적 만족과 비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혼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을 하면서 가사를 돌보거나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2.0%만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0%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40.7%는 대체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기혼여성이 가정과 경력을 양립시켜야 하는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갈등 유형은 시간근거 갈등, 긴장근거 갈등, 행동근거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간근거 갈등은 주어진 시간에 비해 다양한 역할로부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활동을 다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거나, 어느 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에 다른 역할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부족과 시간제약에 대한 심리적인 동요를 말한다. 한편 긴장근거 갈등은 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긴장과 피로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시간과 장소까지 지속되어 그 역할의 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행동근거 갈등은 한 역할에서 기대되는 행동이 다른 역할에서 기대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두 가지 역할을 양립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이러한 직장-가정 갈등은 직장과 가정생활 모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시간근거 갈등을 가장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혜련·임희정, 2000).

면접대상자의 대부분은 그동안 가사나 육아의 부담이 취업을 지속케 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N씨의 경우 출산 후 아이의 양육을 맡아 줄 사람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O씨는 첫 자녀 출산 시에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육아를 담당했는데, 둘째 자녀를 출산하고 아이를 맡아 줄 사람도 없었고, 마침 홀로 된 시아버지를 봉양해야 했기에 그 부담감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공무원이었던 Q씨는 육아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일을 찾아보고자 한다. S씨는 결혼 전에 영양사로 근무를 하다가 결혼으로 그만두고 결혼 후 다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이지만, 막내 자녀 출산으로 인한 양육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이다.

여성인적자원의 낮은 활용도를 지적할 때에 기업측에서 빈번히 지적하는 여성의 상대적인 직업의식 결여나 노동생산성의 저하는 부분적으로는 개별 여성근로자의 특성에 의해서 기인하기도 하나, 주로 보육시설의 미비나 가사노동 등과 같은 가족책

임을 여성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여성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남편근로자가 평등하게 가정과 직장영역 일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 경력단절의 문제

가정과 직장의 양립 의무에서 오는 부담은 결혼과 출산 이후의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즉 경력단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취약성을 야기한다. 우선 자녀가 성장하여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단 경력의 단절을 경험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고용기회는 저숙련, 저임금 직종으로 제한되어 여성의 노동 가치를 전반적으로 저하시키기도 하고, 고학력 유효인력을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대한 부담은 결혼을 당연한 삶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대다수의 여성이 특정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여 성별 직종분리를 고착화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을 경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양극화를 초래하게 한다. 즉 취업을 지속한 여성은 고숙련 직종에서 고임금 혜택을 받는 생존자로서의 이점을 누리는 소수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반면 재진입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저숙련, 저임금 직종으로 몰려 여성 노동시장 내부에 이질적인 두 집단이 존재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황수경, 2003).

면접대상자들은 모두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로 경력단절 기간은 2년~27년까지 다양하다. 또한 대다수의 여성이 결혼을 당연한 삶의 선택으로 받아들여 직장을 그만 두었으며, 그 외 출산에 따른 육아문제, 회사에서의 구조조정 등이 있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로 집에만 있었다던 A씨는 막상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두려움이 앞선다고 한다. J씨 역시 너무 오래 쉬어서 준비가 안된 상황이라 무언가를 한다는 게 힘이 든다고 하였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K씨는 그동안 너무 막연하게 살아오다가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고민이 많다고 한다. L씨도 집에 있으면서 일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으나 막상 일을 하려니 두려움이 앞선다고 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인력의 활용과 기혼여성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단계별 경제활동상태와 특성, 재취업현황 및 경력단절의 문제 등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다. 동시에 현재 재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주부 20명을 대상으로 재취업 희망이유, 조건 및 어려운 점

등 재취업관련 현황들을 면접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생애단계별 경제활동상태와 결혼 전후로 한 취업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들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남편의 실직 또는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절대적인 생계비가 필요하거나, 자녀교육비 등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경제적 동기가 15사례로 나타났으며,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5사례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혼취업여성들은 '가계보탬(45.2%)' 이 되거나 '자기집일(28.5%)', '생계유지(11.8%)' 와 같은 '경제적 이유(86.0%)로 일을 하고 있으며, 자아실현이나 적성활용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청 자료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둘째, 기혼여성들이 재취업시 희망하는 직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결혼 전의 직종보다는 하향 직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나 가사부담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 취업기회에서 제한을 경험한 경우에는 가정일과 관련 있는 일을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일부 결혼 전에 전문직에 종사한 기혼여성들은 자신의 적성과 전문성을 살린 일을 원하였다. 이는 여성취업실태조사에서 기혼여성이 희망하는 취업직종으로 41.6%가 서비스·판매직, 21.3%가 단순노무직, 19.8%가 사무직에서 일하기를 희망한 것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셋째, 기혼여성들의 재취업 희망 조건을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들은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쉬운 시간제를 선호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집과 가까운 거리의 일자리를 원하였고, 특히 육아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집에서 일을하기를 원했다. 이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희망 고용형태를 조사한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64.2%가 시간제 일을 희망하였으며,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대체로 고령이거나 혹은 육아 및 자녀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집단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간제 선택사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나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육아문제로 시간제를 희망하였고, 50대와 60세 이상은 건강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시간제를 희망하였다. 또한 기혼여성들은 집이나 집 근처에서, 출근소요시간이 30분 미만인 직장에서의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44.5%, 34.8%로 상당히 높았다. 출근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직장에서의 일을 하겠다는 취업희망 기혼여성은 1.0%에 불과하였다.

넷째, 기혼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경우 어려운 점으로는 경력단절로 인한 직무능력문제와 성차별 등의 사회적 편견, 가정과 직장을 양립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노동력 특성을 반영한 고용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 기혼여성, 특히 육아나 가사노동의 부담이 집중되는 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줄이려는 정책(모성보

호, 보육지원 등)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즉 모성보호비용이 사회적 부담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지원을 통해 기혼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을 통해 이들을 노동시장 내에 안정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둘째,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기혼여성에게 적합한 다양한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일시적인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탄력적 근무시간제, 직무공유제, 시차 출퇴근제 등 대안적 고용형태를 확대하여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셋째, 기혼여성의 개별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들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 여성직업훈련기관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요구와 자원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단순직종에 치우쳐져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지역산업 및 사회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망직종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식기반산업, 환경관련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혼여성에게 일의 의미는 남성들과 동일하게 생계수단이며 일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기혼여성의 일을 단순한 자아실현이나 여가활용 및 사회참여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고가 아직도 보편적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사담당자,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성역할의식 때문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남성의 일자리도 없는데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남성들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제로섬(zero-sum)'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만 한다.

□ 접수 일 : 2005년 03월 15일

□ 심사 일 : 2005년 03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5월 24일

#### [참 고 문 헌]

- 강혜련·임희정(2000). 성취동기와 가족친화제도가 기혼여성의 직장-가정 갈등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조절변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1-14.
- 김태홍 외(2001).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태홍(1996). 여성 재취업구조와 고용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태홍·김미경(2002). 제4차 여성취업의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양인숙·이소연(2003). 지식기반산업의 여성 지식근로자의 경력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여성을 위한 모임(1999). 제3의 성-중년여성 바로보기. 서울: 현암사.
- 장혜경·김영란(2000). 전업주부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정현희·구혜령(2001). 도시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실태에 관한 연구. 21세기주부문화연구소.
- 통계청(200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한국여성개발원(2004). 2004 여성통계연보.
- 한국산업인력공단(2002). 주부 및 준·고령층 적합 근로직종 연구개발.
- 황수경(20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패턴과 여성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발표문.
- 황수경(20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2002-01.
- 황수경(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황수경(2004). 단시간 근로와 여성인력 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ILO(2003). 노동통계연감.
- McKinsey, Incorporated(2001). 우먼코리아 보고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OECD(2003). 통계 On-line.